



“ALL 水 좋다”...정남진 장흥 물축제 기대감

▲장흥군이 오는 27일부터 8월4일 까지 탐진강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지상 최대 물싸움 장흥 물축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장흥 물축제 현장 모습. <장흥군 제공>

장흥군이 올 여름을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오는 27일부터 8월4일까지 탐진강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한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ALL 水 좋다-신나는 장흥 물축제'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올해 물축제는 보다 젊어진 축제, 글로벌 축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기존 보여주기식 축제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참여자들이 직접 물 속에서 시원한 체험을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진행된다.

올해는 기존 워터락 풀파티에 멀티 미디어쇼를 접목한 '글로벌 워터월드'를 새롭게 선보일 방침이다. 풀파티장 양쪽을 막아 몰입형 공간을 만들고, 물축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미디어 영상쇼를 상영한다. 축제 기간 중 수요 일과 목요일에는 국내 정상급 락스타와 함께하는 락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올해 물축제는 태국 송크란 축제와 손잡고 글로벌 축제로 첫발을 내딛는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태국정

27일부터 9일간...태국 송크란 축제 협업 첫 선 살수대첩 퍼레이드·지상 최대 물싸움 볼거리 부관광정, 전남도, 장흥군이 함께 축제 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물축제 개막식에는 태국 공연단이 참여해 이번 교류협력의 물꼬를 틀 예정이다. 물축제의 백미는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와 지상 최대의 물싸움이다.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는 관광객과 지역민

이 한 데 어울려 물싸움을 벌이며 거리를 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축제 첫날 오후에 시작되는 퍼레이드에서는 시원한 물줄기와 물폭탄이 쏟아지고, 관광객과 지역민은 함께 어우러져 신나는 물싸움을 벌일 예정이다. 지상 최대 물싸움장에는 매일 오후

2시 신나는 음악과 함께 박진감 넘치는 물싸움을 진행한다. 매일 오후 3시에는 황금물고기 잡기가 열린다. 체험 후 잡은 물고기는 손질 후 포장해 갈 수 있다. 물축제는 직접 수익사업 보다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 모아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영될 방침이다. 실제 물축제 기간 동안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마트와 시장 등의 매출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 분위기는 물

축제 끝나고 여름휴가 기간에도 계속 이어진다. 또한 장흥군이 강, 바다, 호수를 두루 갖춘 물의 고장임을 대내외에 선포하며 얻게 되는 군 브랜드 이미지 상승효과도 크다. 김성 장흥군수는 "물축제가 특별한 이유는 관광객과 지역민 모두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라며 "9일간 열리는 물축제에서 가슴 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흥=노형욱 기자

정인화 광양시장, 국비 확보 '전력투구'

2주만에 국회 재방문...경전선 'KTX-이음' 정착 등 12건 건의

정인화 광양시장이 국회의원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건의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이번 국회 방문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2주 만의 방문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권향열 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주호영 국회 부의장(국민의힘), 박정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 9여명의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현안사업들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경전선 'KTX-이음' 열차 광양역 정착 ▲광양만권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 ▲세계 최장 골든브릿지 770건립 ▲광양세무서 설치 ▲국보 광양 중흥산성 참사지 석등 제자리 찾기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국

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사무소 설치 ▲국도2호선 세송교차로 진출입로 추가 개설 ▲세종산단 진입도로 개설 ▲한국항공연수원 광양연수원 건립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개설 등 12건의 핵심사업이다. 정 시장은 최근 이차전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따라 국가 핵심산업 단지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현안 사업들이 반드시 해결돼야 함을 강조하면서 적극 협조를 구했다. 정인화 시장은 "예산 확보에는 여야가 없다"며 "본격적인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앞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광양=양홍렬 기자



정인화(왼쪽) 광양시장이 최근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만나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광양시 제공>

보성군 '참꼬막' 자원회복사업 추진

인공 종자 7천500만 마리 살포...별교꼬막 명성 회복 기대

보성군은 "최근 참꼬막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참꼬막 인공 종자 약 7천500만 마리(121kg/각 장 15mm)를 어촌계 등 양식장 5개소에 살포했다"고 10일 밝혔다. 참꼬막은 보성군의 대표적인 수산자원 중 하나로 수산물 지리표시 제1호 별교꼬막으로 등록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별교어업으로 채취되고 있다. 꼬막의 주산지인 보성군은 전남 생

산량의 약 70%를 차지했지만, 기후변화와 남획 등과 맞물려 1900년대 연간 2만에 이르렀던 생산량이 2010년 8천500t, 2023년 2천으로 매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2021년부터 예산 약 15억원을 투자해 '별교꼬막 종묘배양장'에서 생산한 참꼬막 인공 종자 3억200만 마리(578kg/각 장 15mm)를 보성군 해역에 살포하는 등 참꼬막 자원조성

에 총력을 기울였다. 참꼬막 생존을 모니터링을 매년 진행한 결과 2025년 겨울부터는 2021년에 살포한 참꼬막의 성패를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참꼬막의 가격 안정과 소비자 수요확산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참꼬막은 뛰어난 풍미와 고유의 식감으로 패류 중 가장 높은 고부가가치 수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어업인과 협력해 참꼬막 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과거 별교꼬막의 명성을 되찾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민 기자

구례군, 벼 친환경 재배단지 방제 추진

병해충 공동방제단 구성...드론 등 활용 살포

구례군은 10일 "9월 중순까지 병해충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벼 친환경 재배단지(226농가, 175.4ha)를 대상으로 친환경방제를 살포한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친환경 재배단지의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촌 일손 부

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부터 공동방제사업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동방제는 주요 병해충인 밀구류, 도열병, 흑명나방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2일 앞당겨 총 3회에 걸쳐 진

행된다. 군은 광역 살포기와 드론을 활용해 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먹노린재, 도열병, 흑명나방 등의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친환경 재배단지 공동방제는 안전 농산물 생산과 수출 살리기 실천을 위해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병해충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하고 저탄소 농법 지도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여수 오천산단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국·도비 45억 확보...4층 규모 복합문화시설 조성

여수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하는 '청년문화센터 건립 공모'에 최종 선정, 국·도비 약 45억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988년 조성된 '오천일반산단'은 여수시 수산물 가공 산업을 대표하는 일반산업단지다. 연간 생산액이 약 1천300억원에 이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

를 위한 편의·문화시설이 전무하다.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여수시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40억원, 도비 5억원 등 총사업비 57억원원을 투입해 오천산단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복합문화시설인 '청년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청년문화센터'는 1천519㎡ 부지 내 지상 4층 규모로 특산물전시판매장, 사무실, 구내식당, 헬스장, 건강관리실,



청년문화센터 조감도. <여수시 제공>

다목적실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청년문화센터 건립으로 근로자들의 복지 강화는 물론 청년이 찾고, 머물고, 일하고 싶은 산단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고흥군 '어린이 물놀이장' 3개소 개장

15일부터 내달 31일까지...시설 관리인·안전요원 배치

고흥군이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장 3개소를 개장한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읍 주공아파트 및 도양읍 녹동 어린이집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 물놀이장'은 오는 15일 개장을 8월31일까지 운영한다. 도덕면에 위치한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오는 24일부터 8월2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고흥·도양 물놀이 시설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매주 화요일에 휴장한다.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내 물놀이장에는 바닥분수 등 다채로운 물놀이 종합 시설과 정자,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특히 고흥읍 물놀이장은 지난 2022년에 노후화된 조합놀이대를 교체해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고 지난 2015년 개장 이후 일 평균 5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찾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물놀이 시설 관리인과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아이들이 재미와 더불어 안전하고 깨끗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물, 수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최봉환 기자

담양군, 고흥사랑기부자 입장료 감면 혜택

10만원 이상 기부자 대상...군 운영 공공시설 1년간 감면

담양군은 10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를 대상으로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 입장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감면은 담양군에 고흥사랑기부금을 10만원 이상 기탁한 기부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며, 기부일로부터 1년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 감면

혜택 공공시설은 죽녹원(일반 3천원), 소쇄원(일반 2천원), 메타세쿼이아길(일반 2천원), 한국대나무박물관(일반 2천원), 가마골 생태공원(일반 2천원), 한재골 수목정원(일반 2천원)이다. 입장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혜택 공공시설 매표소에서 고흥사랑e 홈페이지 내 마이페이지·기부내역현황

에서 기부 일자를 확인받으면 된다. 특히 올해 처음 개최되는 제1회 대전면 한재골 수목정원 물축제 입장료를 면제 받아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물축제는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황금보물찾기, 한재골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기부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해 기부자 예우에 정성을 다할 계획"이라며 "휴가철을 맞아 담양군 고흥사랑기부에 동참하고 담양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장성군, 집중호우 대비 취약지 사전 점검

장성군은 10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림분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앞선 5월부터 사전 점검을 추진했다. 또한 읍·면행정복지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산사태 안전 교육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은 비

상연락망을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도 알리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산사태 대응 자체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달 중 사방댐 조성 및 계류보전 사업을 마무리해 산사태 방지 효과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성=김문태 기자